

‘오락가락’ 호남고속철...이번엔 “2016년 완공”

22년 空約...정부 ‘工期 단축’ 의지 보여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2012년 완공을 약속했던 호남고속철 완공시기가 2016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지역민들은 지역의 숙원사업인 호남 고속철의 완공시기가 당초 정부 계획(2017년) 보다 1년이더 앞당겨진 것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최대한 완공시기를 단축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987년 노태우 민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이 사업이 무려 22년 동안 제대된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2년 조기 완공 MB 공약 물거품 오송~광주 8개 구간 9월 동시 착공

◇지역 반응=호남지역의 숙원사업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사업으로 꼽혔던 호남고속철 완공시기에 대한 대통령의 공약이 또다시 물거품이 된데 대해 크게 실망하면서도 완공시기가 다소 앞당겨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영선 광주시기획관리실장은 “정부가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이려면 대선공약으로 완공을 약속한 2012년은 아니더라도 2013~2014년은 돼야 지역민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것 아니냐”

며 아쉬워했다. 그는 “지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당초 완공 시기 보다 고작 1년 앞당긴 것은 정부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실종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 기획경영실장은 “비록 1년 가량 완공시기가 앞당겨져 그나마 다행이지만, 정부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기는 등 호남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가 경부고속철 완공시기를 2010

호남고속철 일정

- ▲ 1987년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 공약
- ▲ 1993년 8월 건설계획 발표
- ▲ 2003년 7월 정부 건설기본계획 용역 완료
- ▲ 2005년 6월 분기지역에 오송역 확정
- ▲ 2006년 8월 건설 기본계획안 확정
- ▲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2012년 완공 공약
- ▲ 2007년 11월 기본설계 완료



년으로 제시하면서도 호남고속철 완공시기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호남 고속철 추진경과= 호남고속철 건설은 지난 1987년 대선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처음 공약한 이후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까지 선거 때마다 등장한 단골메뉴였지만, 무려 22년 동안 공약상태에 머물러 있다.

노무현 정부 때도 2008년 착공을 약속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 집권기였던 지난 2006년 11월 기본설계를 시작한 지난해 11월 2년 만에 설계 작업이 마무리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 오송~광주, 광주~목포 등 전 구간(230.9km)을 동시 착공해 2012년까지 완공하고 ▲목포~광양간 노선 연장까지 검토하겠다고 공약,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새정부 출범 이후 완공시기에 대한 정부 부처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사업추진의지를 의심 받게 했다.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7월 광주를 방문해 완공시기를 2015년으로 밝힌 데 이어 최근 전남 7월 광주를 방문해 호남고속철 2차 구간은 2014년으로 완공시기를 밝혔. 이와 관련, 정부는 계룡산 통과구

간(청원 부용-공주 계룡) 공사 때문에 완공시기 확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구간 자체가 난공사에 예상되는 데다 환경 파괴 논란도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구간은 터널이 들어서는 데 공사용 경구와 토사를 운반하는 임시 도로를 만들다 보면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천성산 터널 공사를 둘러싼 환경 파괴 논란으로 공사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 파괴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계룡산 구간에서는 지역 NGO가 참여해 공동으로 환경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공사 중에도 모니터링 위원회를 꾸려 공사가 끝날 때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오송역과 익산역 일괄 수주공사 구간을 6월 착공하고 나머지 오송-광주 182km 구간은 총 8개 구간으로 나눠 오는 9월 착공한 뒤 2015년 개통하는 것으로 잡고 있다. 목포까지의 전체 구간은 2017년 개통될 예정이다. /영리기자 penfoot@



이명박 대통령의 '2012년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공약과 달리 정부가 완공시기를 2016년으로 늦출 전망이다. 사진은 호남고속철도 KTX열차. (광주일보 자료사진)

정대표 입지 강화...‘잠룡’들 꿈틀

민주 대선 후보 구도 변화

여야 1차 입법전쟁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구도 변화가 나타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현 정세균 대표를 관리형으로 보고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손학규 전 대표, 추미애 의원 정도를 대권 도전 가능성이 후보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여야 대치 과정에서 리더십을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대권 도전 가능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다. 더욱이 손 전 대표의 침거와 정 전 의장의 외유가 길어지고 추 의원이 당내에서 큰 역할을 못하면서 정 대표의 입지가 강화되는 형국이다.

때문에 새해 들어 이들 잠룡들의 행보는 민주당의 차기 대권 구도를 형성하는 함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에게는 2월 2차 입법전

쟁 결과가 대단히 중요하다. 민주당 역량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대권 도전 가능성을 확고히 할 수 있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순간 타오른 성냥불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추 의원은 작년 12월 초 출판기념회를 시작으로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를 시작했다. 오는 3월 6일 열리는 생활·노동·환경·교육의 4대 테마로 현장을 도는 ‘전국 투어’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맥을 확보하고 전국적 조직을 다진다는 복안이다. 여기에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관록과 참신한 이미지가 강점으로 평가되는 천정배 의원에 당내 대선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정 전 의장과 손 전 대표의 복귀는 민주당 대권 구도의 가장 큰 변수가 된다. 특히 올 4월 재보선 출마 여부는 당 내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대권 구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듀크대에서 연수 중인 정 전 의장의 경우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옛 지역구인 전주 덕진 출마실이 계속 나온다. 당초 올 초 중공청화대로 옮기려던 계획을 잠정 연기한 것을 두고도 복귀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 덕진 출마에 대해 측근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지만 정 전 의장 본인은 출마 쪽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춘천 농가에서 닭 사육, 발농사에 몰두하며 침거 중인 손 전 대표의 경우 아직까지 4월 재보선 출마를 단 한번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 측근은 전했다. 이 측근은 “큰 명분 없이 지역구를 또 옮기며 재보선에 나서는 것은 손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출마는 어려울 것”이라며 “여정을 돌아보며 진로에 대해 ‘사색’ 중으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동아 기고는 누가했나

인터넷 게재 글 진위 여부도 가려야

■미네르바 구속...남은 미스터리

검찰이 지난 10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씨(31) 씨를 구속했지만 풀어야 할 미스터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외환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사안의 성격 및 중대성에 비해 구속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법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이날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보법 위반)로 박씨를 구속수감했다.

그러나 검찰 주장과 달리 박 씨가 게재했던 글들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만은 아니라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 박 씨가 월간지에 인터넷 기사를 썼다고 밝히면서 신동아에 기고한 ‘미네르바’가 누구인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검찰이 박 씨의 글을 허위사실로 보고 구속영장에 포함한 범죄사실은 크게 두 가지, 작년 7월30일 ‘드디어 외환보유고가 터지는구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환 예산 환전 업무 8월1일부터 전면 중단”이라고 쓴 것과 12월29일 “정부가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게시

한 것이다. 검찰은 이 글들을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7월30일 작성된 글은 당시 기획재정부가 실제 해외차관 원리금을 갚을 때 외환보유액에서 달러를 환전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또 ‘달러 매수 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재정부 등 외환당국이 지난해 12월26일 은행외환에 7대 시중은행 간부를 모아놓고 외환 매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미네르바 글의 본질이 정부가 외환 개입을 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이 미팅이나 공문이라는 형식에 불과한 것인데도 단순히 “공문은 안보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유포로 보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다.

박 씨가 작년 12월 한 월간지와 인터넷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신동아가 접촉한 ‘미네르바’가 누구인지도 검찰이 밝혀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박 씨는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월간지와 인터넷한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이 밝혀주길 바란다”며 인터넷을 한 ‘미네르바’가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教育事業者를 모십니다.

교육자적 신념과 사업자의 열정을 가진
경영 파트너를 초대합니다.

▶ **지역별 마케팅** 현대, 중국어, 특허, 논문, 한글, 국어, 영어, 수석강의 학습교재

▶ **사업 대응** 1. 개인 대상의 1대1 방문 학습지 사업 2. 유치원, 학교 후수업, 비유치 사업 등

▶ **사업 기획** 세무, 부산, 경영, 경영 컨설팅, 전략 기획

▶ **수업 지원**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jangone.co.kr 또는 02-2202-9100, jangon@jangone.co.kr

▶ 모든 회원님! 저소득층 지원책은 배제됩니다. 복지, 논술, 전등 학습지

▶ **www.jangone.co.kr / www.jangoneparis.co.kr / www.jangonechinese.com**